

부산 스포츠 기초 특

Vol. **35**
2023. 03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이슈 & 포커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회장 취임

부산체육인

아이스하키 볼모지에서 피운 열정의 꽃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 조우현 회장

영광의 인물

인생의 재미를 낚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 이택우 원로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 스포츠, 과학을 만나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구·군체육회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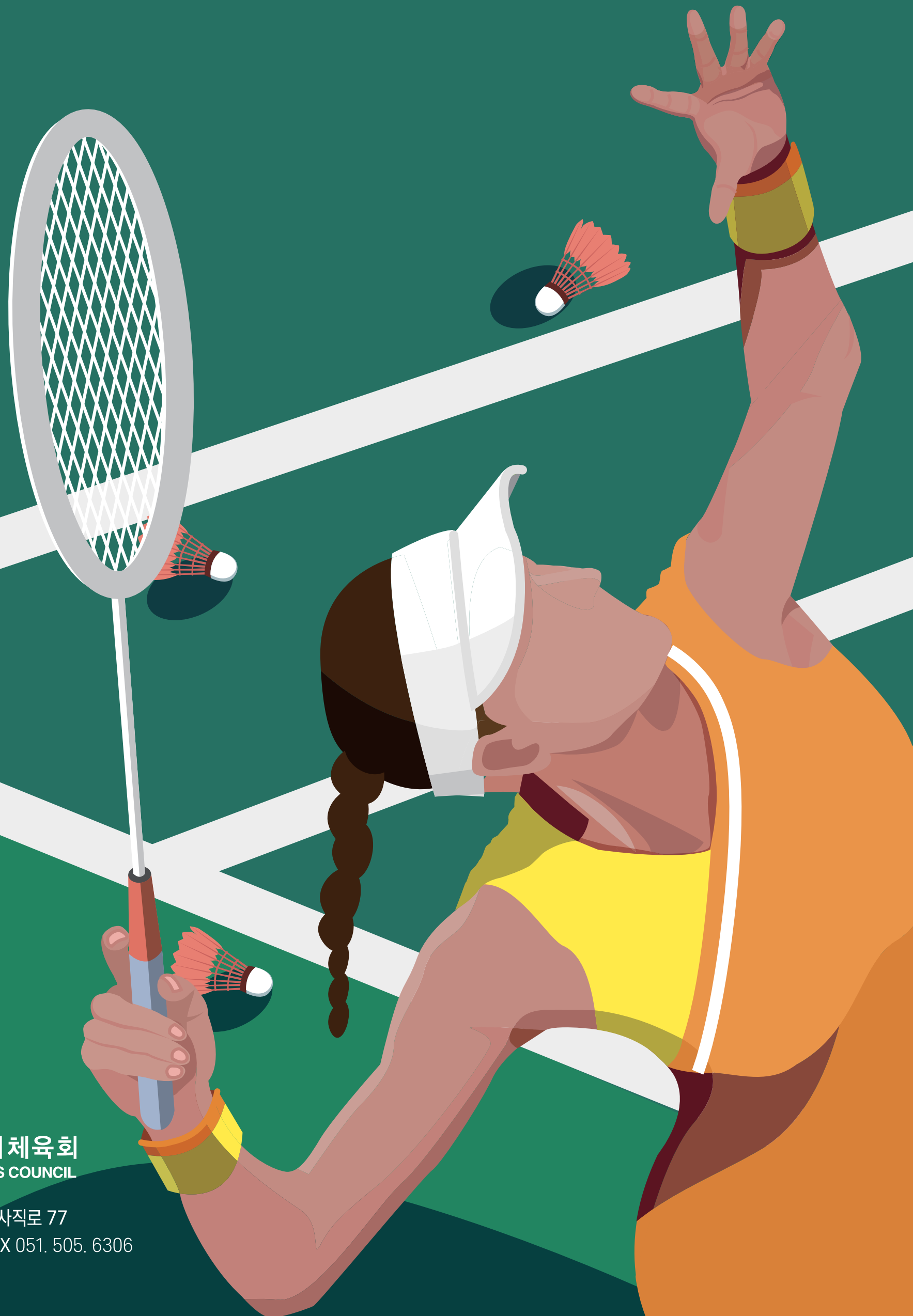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화신이 되지 않습니다.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이슈 & 포커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회장 취임



부산체육人

아이스하키 볼모지에서 피운 열정의 꽃

-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 조우현 회장



영광의 인물

인생의 재미를 낚다

- 부산광역시낚시협회 이택우 원로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 스포츠, 과학을 만나다

-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구·군체육회를 가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장인화 회장 취임

2022년 12월 15일 실시한 제27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는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지역 상공계와 연계한 회원단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투표 결과, 총 유효표 382표 중 251표(65.7%)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장인화 회장은 “시민, 체육인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체육 발전에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인화 회장은 재선 성공의 이유로 ‘변화의 물결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체육인들의 마음’을 꼽았다.

이렇듯 체육인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 1기가 재정적·제도적 안정을 찾는 시기였다면 민선 2기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잡힌 운영과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다운 경영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내 4개의 체육시설 운영, 지역 기업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등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반과 더불어 지난해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와 소통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화 회장은 2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제공돼야 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선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아이스하키 볼모지에서 피운 열정의 꽃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

조우현 회장

부산에서도 아이든 어른이든
자유롭게 아이스하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육성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1924년 샤모니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 아이스하키. 실제로 아이스하키 경기 모습을 관람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감과 선수들의 과감한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조우현 회장이 그 매력을 처음 접한 건 중학교 때 AFKN 채널에서 방영하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면서였다.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 스틱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퍽을 가지고 빠르게 쳐나가는데, 퍽을 치는 힘과 속도가 빨라서 보호장비를 입고서도 민첩함이 남다르죠. 그렇게 보는 걸 즐기다가, 주변에서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하시는 분 덕분에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TV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팀 플레이를 경험한 조 회장은 부산에서도 아이스하키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다 아이스하키협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와 함께하며 회장직을 맡고 있다.

부산 아이스하키팀은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수차례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데, 2002년 제103회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엘리트가 아닌 클럽팀이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끊임없는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조우현 회장은 지속적으로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 아이스하키 저변을 넓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스하키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산에서도 아이든 어른이든 자유롭게 아이스하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육성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스포츠가 되도록 아이스하키의 매력과 장점을 알리는 것이 협회의 첫 번째 과제라는 조우현 회장. 아이스하키가 국민 스포츠가 될 그날까지, 부산광역시아이스하키협회의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한다.





인생의 재미를 낚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

이택우 원로

낚시하러 가는 곳은 확실히 공기가 맑아요.

그래서 낚시 한번 갔다 오면

석 달 오래 산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감기가

낚시를 다녀오고 나온 적도 있어요

낚시는 주로 ‘인생’, ‘세월’ 같은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데, 이택우 원로는 낚시를 시작한 지 40년은 족히 될 거라고 한다.

“회사 야유회에 갔다가 낚시하는 동료들을 따라 처음으로 낚싯대를 물에 담가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싯바늘이 무언가에 걸려서 조심조심 끌어올렸더니 문어가 잡혀 올라왔어요.”

이택우 원로가 생애 첫 낚시로 잡은 문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맛있게 삶아 다 같이 나눠 먹었다. 그날을 계기로 이택우 원로는 낚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낚시하러 가는 곳은 확실히 공기가 맑아요. 그래서 낚시 한번 갔다 오면 석 달 오래 산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감기가 낚시를 다녀오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일흔을 훌쩍 넘긴 이택우 원로의 건강 비결 역시 낚시지만, 사실 이택우 원로는 그저 즐거움을 위해 낚시를 한다. 간혹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냐는 볼멘소리를 들을 때면 “어부도 물고기를 못 잡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부냐, 우리는 낭만 삼아 치유 삼아 낚시를 한다.”며 낚시에 대한 소신을 밝힌다.

그렇다고 그가 물고기를 잡는 데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연연하지 않을 뿐.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바로 회를 쳐서 먹는 재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 낚시할 때도 많다. 이택우 원로는 바다낚시의 재미가 물고기를 잡는 거라면 민물낚시의 재미는 풍경 감상이라고.

“잔잔한 물 위에 케미라이트가 별빛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조용한 밤에 개구리 울음소리는 어느 악단의 연주 소리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는 물안개가 강가에 운치 있게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싱싱한 음식을 맛보는 걸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이택우 원로. 그는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낚시를 계속할 거라고 한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부산 스포츠, 과학을 만나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의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사업에 선정되면서 설립되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전문 선수에게 스포츠 과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문 체육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지난 2월 힘찬 걸음을 내딛은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는 29종의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다. 또한 8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종목별 특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과 훈련 가이드 제공은 물론 심리검사 등의 전문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꿈나무 선수 중 우수 선수를 선발해 밀착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선수 및 지도자와의 '신뢰'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며, 원만한 유대 관계를 통해 부산체육의 성장을 돕고자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이하 부산진구체육회)는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라는 슬로건에 맞춰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캠프, 청소년 체련캠프, 장수체육대학,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다문화가정생활체육지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유아체육활동지원, 백양산 숲길 걷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이색 프로그램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홈 트레이닝 열풍이 이어지는 흐름에 맞춰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도 구민들을 찾아뵙는 중이다. 부산진구체육회는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백양산 등 부산진구만의 특색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